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유례없이 더웠던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찜통 같은 사동, 좁은 수용 거실 안에 뻘뻘이 갇혀 있을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넘겨버릴지 몰라도, 저는 징역형이 사람이 지내기 어려운 환경에 방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이 기후변화는 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기심으로 인한 대가라는 반성, 무엇보다도 누구도 이렇게 지내도 괜찮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면 안 되고, 돈을 많이 가진 재벌 3세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이주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근로환경이 엉망인 곳에서 일해서는 안 되며 배달 노동자라고 존중받아야 하듯, 감옥에 있다고 하여 죽을 만큼 덥고, 습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길에서 상자를 주우니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신체적 장애가 있으니까,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위나 재력이 타인을 무례하게 대하는 힘이 아니며, 작업복, 피부색, 신체 능력, 나이 등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망토가 아닙니다.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긴 여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올 그 무더위를 대비하며, 이제는 사람이 지내고 있는 수용시설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멸종히 잘 쓸 수 있는 권력자의 거주나 집무 공간 이전에 드는 비용은 있으면서, 그보다 수많은 사람이 교정 교화되는 환경을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폭염 재난에 힘들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탄식을 크게 들으실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탈출 2,23)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총회



8월 21일(수)~23일(금)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교정사목 사제, 수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장을 선출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수용자와 출소자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사제, 수도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9월 2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위원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 중에는 서울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배영희 헬레나님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늘 수용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봉사자들을 위해 응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각 교정시설 추석 간식 지원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3,500개), 서울동부구치소(3,200개), 서울남부구치소(2,400개), 서울남부교도소(1,500개) 모든 수용자에게 약과를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에는 토스트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햄버거를 전달하였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추석 간식으로 허전한 마음이 조금 이나마 채워져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밀 가족 야유회



9월 11일(수)~12일(목) 살레시오회에서 주관하는 태안 내리공동체에서 해밀 가족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피정센터에서 머물며, 해미성지와 신리성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는

유재실 베로니카 / 서울구치소 남사 봉사자

서울구치소 남사에서 봉사한 지 벌써 십수 년이 됐네요.

세례받고 본당에서 봉사만을 하고 지내던 어느날 김성은 신부님이 교정 사목 후원회원을 모집하러 저희 본당에 오셨습니다.

그전까지는 교정사목이 존재했는지,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저는 그날 신부님의 말씀으로 교정사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큰 감동을 하여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본당 자매님으로부터 서울구치소 남사의 성경 공부 봉사를 권유받았습니다. 본당에서 성경 봉사를 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미사를 봉헌했던 첫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수용자 형제분들이 앉아 있는 쪽으로 저는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제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무섭고, 켄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형제분들은 법을 어겼을 뿐이라며 마음을 다져 먹고서야 그분들을 마주 보고 웃으며 평화의 인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대화도 많이 나누며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분들인데 단지 어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 가신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 한 일 때문에 간힘으로써 보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는 김성은 신부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니며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봉사하고 싶은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요나탄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요나탄은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나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탄은 사울의 전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왕의 신뢰는 요나탄의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를 않는다네.” (1사무 20,2) 사울이 얼마나 요나탄을 신뢰했는지, 그가 필리스티아인과의 전투에서 삼천 명 중 천 명을 요나탄이 지휘하게 합니다(1사무 13,2).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아들이기에 받은 신뢰가 아닙니다. 요나탄은 적군의 진지에 무기병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 스무 명을 죽이고, 또한 적군 진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을 세울만큼 용기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요나탄은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권을 물려받을 위치였으며, 선왕의 신뢰가 있었고, 또 용기와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요나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왕좌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탄은 그 신뢰를 깨지 않도록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가부장제가 확고한 사회, 십계명 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탈출 20,12)라고 엄연히 적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막 시작하였는데, 그 첫째 왕,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반항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요나탄이 아버지를 따르기보다는 다윗을 택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친구 중에 단순히 친구를 택하였다고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보장된 자신의 권력과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적이자 자신의 경쟁자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당시에는 죽거나,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요나탄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1사무 20,33). 권력자 왕의 관점을 거부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회의 주된 흐름과 시각을 거슬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1사무 20,30). 그러한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위협하는 인물 편에 서서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1사무 19,4.5)”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일세.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네.” 둘은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1사무 23,16-18)

요나탄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울에게 다윗을 감싸주고, 또 다윗을 찾아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은 많이 있습니다. 정적일 수도 있고, 마녀사냥이나 각종 혐오로 물리는 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이들은 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수용자도 감옥에 있다는 이유로 선입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 들어가서 수용자들을 위로와 격려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교정사목은 수용자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감싸주기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옥을 방문하며 교정사목을 하는 교정사목자, 수도자, 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의 모습 안에서 요나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 사회복귀과 박○○ 교도관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자금 지원 대상으로 이○○ 자매를 추천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 자매가 대상으로 부족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역 기간도 5년으로 길고 여성 가장으로서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창업 경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지금의 모습으로 ‘기쁨과희망은행’ 앞에 있기 위해 출소 후, 매 순간 도전에 가까운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쁨과희망은행’에서는 그 용기와 노력을 꼭 알아보고 이○○ 자매의 장래성을 가치 있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이○○ 자매는 ○○구치소 수용동에서 교도관과 수용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자매는 3년째 복역 중이던 사동 도우미로서 교도관들에게 신뢰받는 수용자였습니다. 출소 후 노모와 어린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자매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출소자에게 편견이 없는 천주교 재단 병원에 취업하자. 그러기 위해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매의 종교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될 것이라 믿고 얼굴을 뵈는 적이 없는 신부님께 자기 개방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귀 후 성실한 삶을 사니, 이○○ 자매를 도와주는 분들도 생겼고 이○○ 자매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작은 공간을 빌려 케이터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입니다. 실제로 맛보셨을 겁니다. 보기에요 예쁘고 맛있습니다. 일머리도 있고 손도 빠르고 성실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음식 맛이나 경영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수익도 많이 날 것입니다. 이번에 도움을 주셔서 이사 가게 될 아파트도 케이터링 창업을 염두하고 결정했을 정도로 창업에 의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왜 신자도 아닌 자기를 도와주냐?’고 물으면서도, ‘신부님께 편지를 써보자’ 이 말 한마디를 붙들고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해낸 이○○ 씨의 노력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순간의 실수로 교정시설에서 복역 후 출소 한 이○○ 자매와 인연을 이어가는 교도관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지원에 이○○ 자매를 추천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출소 후 어려움이 있을 때 출소자가 내민 손을 잡아주고 신부님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교도관의 편지입니다.

+ 찬미 예수님

역대급 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열대야도 기록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 더 끈적끈적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런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신부님 못 뵈는지도 근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그제, 그러니까 8월 8일 목요일 서울남부교도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폭서기 특별 간식 아이스크림이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맛볼 수 없는 빙과류였기에 모두 정말 좋아하며 맛나게들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열기로 더위를 느끼던 차에, 차고 시원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단맛이라 참 좋았습니다. 한참 맛나게 먹고 있는데 공장(작업장) 반장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특별 간식 빙과류는 천주교에서 주시는 거랍니다!”

순간 감사하고 기분좋고 뿌듯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역시 천주교는 다르네!”, “천주교밖에 없구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모든 분과 정민하 신부님 덕분에 서울남부교도소 전체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사가 없는 한 달 동안은 신앙 관련 서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매일미사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생활성서, 경향잡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좋은 말씀 좋은 글귀가 있으면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글들은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펼쳐보고 새롭게 공감하고 마음속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정민하 신부님과 미리암 수녀님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 정말 고귀한 삶을 사시는 분들,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님을 위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여러분과 후원해 주시는 많은 은인들을 위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경건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무더위가 살짝 지나갈 때쯤 하반기 종교 행사 일정도 재개되겠죠. 올 하반기 미사에서도 신부님께서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미사 집전해 주시는 모습과 강론이 기대됩니다. 또한, 동영상을 통한 공감과 가르침, 감동의 시간도 기대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미사가 지루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정민하 신부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 미사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24. 08. 10.

마르코 올림

*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정민하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명동 교구청 앞마당)
- ▶ 장소: 광탄 나자렛 묘원
- ▶ 접수: 10월 2일(수)~18일(금)
- ▶ 회비: 1만원 (점심 제공)
- ▶ 준비물: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전화접수: 02-921-5094 / 010-3732-5093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9월 5일(목)~12월 5일(목) 2024년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10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월 11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 강화도
- 10월 14일(월)~1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10월 16일(수)~1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남사
- 10월 16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10월 19일(토)~20일(일) 위례성모승천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10월 21일(월)~25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 10월 23일(수)~25(금)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제주도
- 10월 28일(월)~11월 1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의정부교도소 남사
- 10월 31일(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명동 대성당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8/15~9/19)

2024년 8월~9월에는 김미애, 김성일 에라스도, 김영춘 에노파, 김해진 올리엠타, 배영숙 글라라, 손영옥, 유환영, 최은경, 최혜경 요셉피나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임운자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